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 2012년도 제6차 회의

1. 일 자 2012년 3월 22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현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박 원 식 부총재보  
김 종 화 부총재보 추 흥 식 외자운용원장  
이 용 회 커뮤니케이션국장 성 병 희 거시건전성분석국장  
김 민 호 통화정책국장 유 상 대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명 종 공보실장  
서 영 경 금융시장부장 성 상 경 의사관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 <의안 제9호 — 2011년도 연차보고서(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정부에 제출 및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2011년도 연차보고서를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연차보고서의 작성과 보완 등이 주관위원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수차례 위원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보고하였음

먼저, 연차보고서 체제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들은 총재 서문에 국내외 경제동향 등 본문 내용을 요약하여 반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부터 연차보고서 체제가 개편되어 경제동향 부분을 축소하는 대신 당행의 업무 및 경영상황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종전 경제동향을 요약·정리한 총설 부분을 생략하고 이를 총재 서문에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답변한 후, 아울러 ECB와 캐나다 중앙은행 등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제1장 한국은행의 개요’ 부분이 자칫 매년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보고서 체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내년 보고서에는 금년 2월의 조직개편과 집행간부 인사 등으로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내용변화가 미미할 경우 이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연차보고서 내용의 수정·보완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청의 물가지수 개편내용, 당행의 통화금융대책반 구성·운영 내용 등을 추가하고 부동산시장 동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등 우리 경제상황과 당행의 업무수행 내용을 보다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연차보고서가 사료 내지 기록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실 위주의 객관적 기술이 필요하며, 조직개편 등과 관련하여서는 내용 확정시기와 시행시기를 확인해 관련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사 확대 공급하였던 유동성의 환수 노력 및 외화자산 운용의 다변화 추진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보다 객관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연차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문장을 간결화하고 본문에 숫자를 지나치게 많이 언급하지 않도록 하며, 국내외 경제동향 부분에서는 부문별 소제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2011년도 연차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2011년도 연차보고서(안)(생략)

### <의안 제10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2년 4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2년 4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작성과 보완 등이 주관위원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위원협의 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및 보완·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하였음

먼저, 관련부서는 금번 보고서는 종전과 달리 원고작성을 유관부서가 분담하여 집필함으로써 내용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주제를 다루는 <참고> 사항의 경우 유관부서들이 분담해서 작성하였다고 보고하였음

아울러 관련부서는 보고서 작성시 중점을 둔 사항이 다음과 같음을 보고하였음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동향과 관련하여 미국경기의 약한 회복세, 유럽지역 국가채무문제 지속 등 글로벌 경제여건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또한 국내경기 둔화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기대인플레이션, 가계부채 문제 등 국내 금융·경제의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서술하였음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의 기준금리 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고,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및 방향은 조사국의 작년 12월 경제전망을 토대로 이후의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이어서 관련부서는 그동안 위원협의회 등에서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앞으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체계와 관련하여, 다음번 보고서부터는 ‘통화신용정책 운영’ 부분에서의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서술 내용을 동향 설명 위주에서 해석 중심으로 개선하고, 보고서 전체적으로 금융·경제동향 부분보다는 정책운영 부분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로서의 특징을 부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원고 작성을 유관부서가 분담함으로써 내용의 전문성을 제고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인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으므로 이 같은 작성방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보고서의 전반적인 체계, 내용 및 작성방식 등을 재검토하여 오는 9월 보고서부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보고서 내용의 주요 수정·보완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그 방안으로 해외 불안요인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및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된 점을 강조하고, 글로벌 물가의 리스크 요인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재상승 등이 잠재해 있음을 보다 상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국내물가는 금년 들어 주로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들은 금융·외환시장의 흐름에 대한 서술 부분에서, 지난해 9월 하순 이후의 원/달러 환율 하락요인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이외에 한·일 및 한·중 통화스왑 발표 등을 추가로 기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해외 불안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외화자금사정은 외화유동성 선 확보 노력,

중장기 차입자금 유입 등으로 대체로 양호했던 점을 추가로 기술할 것을 요청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보다 폭넓은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표물가와 체감물가간의 괴리 원인」, 「장단기금리 역전현상 발생 배경」, 「최근의 통화증가율과 유동성 상황」,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추가 완화의 영향」, 「최근 유가동향 및 전망」 등 모두 5개 주제의 참고사항을 추가할 것을 주문하였음

이상과 같은 요청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2년 4월)(생략)

### **<의안 제11호 —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실시(안)>**

(1) 담당 부총재보가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 buyback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당행 대출금 상환실적,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2012. 4. 2일 만기도래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4,936억원을 재대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당행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은행의 순이익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시 대출금리를 조정해 준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등 은행에 대한 상환 인센티브(incentive)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일부 위원은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계획이 포함된 은행에 재무계획을 징구하거나 당행 대출기간을 단축하는 등 은행의 조기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난해 말 대규모 조기상환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은행 수지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당행 대출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을 실시할 것을 의결한다.

<불임>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실시(안)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참조)

### <의안 제12호 — 2012년 2/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12호 — 「2012년 2/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최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완만하게나마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자금사정지표는 부도업체 수가 감소한 반면에 건설업 등 일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다소 상승하고 있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대내외 여건악화 등으로 신용위험 상승우려가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완화기조가 약화될 전망이다 점, 금년 4월부터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ast-track program) 연계 특별지원한도 1조원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신용대출연계 특별지원 한도를 신설·운용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12년 2/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전분기와 같은 7조 5,000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총액한도대출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첫째,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들 간에 경쟁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총액한도대출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된 자금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평가하고, 셋째,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가지고 벌칙(penalty)을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토록 하는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게 하는 정책수단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에 앞서,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를 그대로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검토한 후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 (3)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 · 가결

#### 의결사항

2012년 2/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7조 5,000억원으로 정한다.